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어쩌다 유행가를 흥얼거리다 보면 뜻하지 않게 노랫말 어느 한 대목에서 '그게 진리로구나' 갑탄을 연발할 때가 많다.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기심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려다." "뿔방아 도는 내력"이라는 노래의 가사 한 절이다. 세상에 좋은 것이 벼슬이고, 그 이상 좋은 것은 명예인데, 왜 그것이 싫어서 초가삼간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연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조선 왕조 초기 세종이 세하고 이어 보위에 오른(1451년) 세종의 아들 문종이, 전라도 영암의 영보촌에 숨어 살면서 학문만 연구하던 관인이자 학자였던 연촌 최덕지(崔德之, 1384~1455)에게 예문관 직제

떠날 때의 아름다운 뒷모습

-연촌 최덕지가 은퇴하던 날

학이라는 참으로 명예로운 벼슬을 내려 조정으로 나오게 했다. 최덕지는 내키지 않았으나 새로 등극한 임금의 부름에 예의상 응하지 않을 수 없어 상경한 뒤 직책을 맡았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지내고 남원 부사로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해 버린 옛 신하를 불렀음은, 그만큼 그의 덕망이 높았던 탓이었다. 하지만 마뜩잖게 여겼던 대로 오래 벼슬할 세상이 아니었다. 문종은 병약한 몸이었고 그 아들 단종은 아직 어렸는데, 문종의 아우 수양대군 즉 뒷날의 세조가 국정을 좌지우지하여 징조가 좋지 않아 보였다.

이에 최덕지는 결단을 내린다. 벼슬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나는 기심 때는 시골로 돌아가겠다면서 치사(致仕)의 상소를 올리고, 미련 없이 서울을 떠나고 만다. 벼슬에서 물러날 연령이 아닌데도 이른바 명예퇴직으로 서울을 떠나겠다는 뜻이었다. 조정이 발각 뒤집혔다. 그런 어진 선비 관인이 벼슬을 그만둔다니, 아쉽지만 그의 훌륭한 의리에 감탄하여 당시 조정에 벼슬하던 모든 이들이 떠나는 최덕지를 한강까지 따라 나왔다. 모두가 송별의 시를 지어 그의 아름다운 떠남을 극구 칭송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

렇게 좋은 벼슬, 그렇게 높은 명예를 헌신짝처럼 던지고 홀연히 서울을 떠나는 최덕지의 뒷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다행인 것은 이때의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남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 왕조 500년의 대표적 의인이던 박팽년·성삼문 등 뒷날의 사육신들이 모두 선상으로 모셨던 그의 떠남에 칭송과 아쉬움을 간절한 시문으로 나타냈다. 또한 정인지·최우연·이석형 등 당대의 명인들 모두가 이에 동참했으며, 40명이 넘는 동료·후배들이 시로써 글로써 그의 낙향을 한없이 아쉬워하고 부럽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성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에 온전했으니, 그 남은 우리들의 스승이로다"(終始能全義 如公我所師)라고

그의 '최직재학귀전시관별'(崔直提學歸田詩學致)이라는 글에서 "최 선생께서 상소를 올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서로 칭찬해 마지않으며, 아는 사이나 모르는 사이에 관계없이

흐모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다. 벼슬과 명예를 가볍게 여긴 최덕지의 높은 뜻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어려운 일을 쉽게 결단하고 의리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모두가 우리러보며 흠모해 마지않을 것이다.

연촌(烟村)으로 부르던 호를 존양(存養)이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온 최덕지는 존양재(存養齋)라는 서재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6세기에야 꽃피우던 호남의 유학은 이미 15세기의 최덕지에서 그 뿌리가 심어졌음을 알게 된다. 뒷날 전라 감사로 영보촌을 방문했던 저헌이석형(李石亨)은 '제최직재학존양정'(題崔直提學存養亭)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내 마음 보존하여 나의 상품 기르도다.(存吾心存養性) 세상의 명예 구하지 않고 천명(天命)을 즐기노라.(無求於世守樂夫天命)" 최덕지의 존심양성(存心養性)이라는 성리학 공부와 학문의 깊이를 한없이 찬양한 것이다.

호남에서 조선 초기의 대표적 성리학자는 최덕지였다. 그는 선비의 의리를 실천하고 지킨 참신비였다. 그럼에도 호남에 학문의 뿌리를 심은 그분은 우리는 모두 잊고 지나고 있다. 이제는 그의 학문과 의리를 밝혀서 현양해야 할 때가 아닌가.

社說

여수 낚시 어선 사고 '안전 불감증' 여전했다

여수에서 갈치 낚시를 위해 출항한 어선이 경남 통영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다섯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는 두 선박이 상대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에도 서로 피해 갈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한 데다 승객 일부는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청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4시 30분경 경남 통영시 옥지도 남방 80km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여수 선적 무적호가 파나마 선적 화물선 코에타호(3381t)와 충돌해 전북망면서 선장 최 모(56) 씨 등 세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실종됐다. 조사 결과 두 선박은 상대를 먼 거리에서부터 식별하고 속도만 다소 늦추었을 뿐 항로를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전해야 뒤늦게 항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무적호에 설치된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나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당시 사망자들을 포함한 네 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낚시 인구는 최근 700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이에 따른 낚시배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 장비 비치와 교육 이수, 통신키기 작동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선상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 면허제를 도입해 공유 자원인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호구역 지정 앞둔 장록 습지 훼손해서야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장록 습지'에 대해 지역환경단체 등이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장록 습지는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에서 송산유원지 인근 영산강 합류점까지 이어지는 구간(약 3km)이다. 물론 광주시와 환경부도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광주 전 지역의 습지 생태 현황 조사를 펼쳤고,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에 장록 습지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장록 습지 인근에 이미 주차장과 축구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광산구청은 지난 2017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장록 습지 인근 하천기 본계 획'을 수립하고 습지 중간 지점에 축구장과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광산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및 일부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 등이 주민 이익을 논리로 반대하며 제동이 걸렸다"며 "장록 습지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자 광산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를 습지 상류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주민 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고 습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경 부지 또한 습지와 인접하고 있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산구는 "새로운 자연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있는 습지까지 훼손해야 되겠느냐"는 환경단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갈수록 습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국가 습지 보호 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조칼럼

상속 재산의 파산 제도



김성진 변호사

'상속 재산의 파산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홍보하고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에겐다 흠아버지자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빚만 물려받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이 있다. 아들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상속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그 후 아들은 각 채권자들에게 한정 승인 허가 사실을 알리고, 일간지 등에 공고 하면서 빚을 청산하려 했다.

그러나 그 변제 절차가 복잡하고, 우선순위의 빚보다 후순위 빚을 먼저 갚을 경우에는 우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손

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걱정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 한정 승인 제도이다.

한편 이처럼 상속 채무가 과다할 경우에 다소 생소한 '상속 재산의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더 유익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한정 승인과 달리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회생)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리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사람에게 대한 파산 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 파산 제도의 신청권자는 상속인 뿐 아니라 상속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 재산 관리인 및 유언 집행자로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상속 채권자도 신청이 가능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회수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다 상

당이 사망하면 채무자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하기 위해 소송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채권자가 상속 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할 경우 소송 수계를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상속 재산 파산 제도는 파산 관리인에 의한 상속 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또한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상속 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 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후시라도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도 없다. 그리고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속 재산 파산 제도의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이를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상속 승인이 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 개시

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 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 승인 또는 재산 분리에 기한 청산 절차 진행 중에는 가능하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한정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상속 재산의 파산 신청이 기각되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하겠다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한 다음 상속 재산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제도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뉴 스타트(NEW START) 상담 센터에서 방문자에 한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그밖에 광주 등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고

국동항의 기억 재생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과거 '도시화 개론'의 마지막 강의가 생각난다. 도시도 생명에 있는 유기체와 같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지였다. 처음에는 '도시가 생물인가? 생명에 있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도시를 연구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다가온다. 인간이 경험하는 생로병사처럼 도시도 태동과 성장, 쇠퇴의 현상을 겪는다. 문명의 발전과 몰락, 특정 산업의 부흥과 낙후 속에서 지역과 공간도 흥망성쇠를 공유한다. 고대 바빌론과 로마, 중세 코르도바와 피렌체, 근대 런던과 파리, 현대 뉴욕과 상하이 등 도시 역사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는 정책이 가지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활성화된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내는 것이다. 동시에 과

거의 기억을 활용해서 대상지의 미래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지에 대해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다양한 유형형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수 국동항은 필자에게 연구 대상의 지평을 넓혀준 사례이다. 국동항은 과거 잡는 어업과 잡수업이 발달된 어항이면서, 선원 문화의 집적지이자 영화 '모정의 뱃길'의 배경으로 지역민들에게 회자되는 곳이었다. 현재는 다기능 어항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낚시 인구가 모여들면서 여수 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는 인근 경도에 국제 규모의 해양 관광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등 여수의 미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배후 부지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동항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과거의 활성화된 장소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동항 국가 어항 단지를 중심으로 보행자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사람이 보행하면서 만들어지는 연결 네트워크가 다양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쇼핑, 위락,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통행 시설 정비 사업을 통해 국동항의 뼈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동항과 배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해양 문화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어업 기지로서의 국동항 기능, 선원들의 소비 활동, 잠수기 어업의 잠수부 어구·어업법, 모정의 뱃길과 관련된 자원 등 과거의 활성화된 기억과 해양 문화 자원을 모으고 발굴하여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동항을 비롯한 배후 지역과 항후 경도리조트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동항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배치하여 샌프란시스코 '피어(Pier) 39'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도리조트 방문객이 국동항을 통해 여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연결 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과거 활성화된 국동항의 기억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수의 대표적 인 핫 플레이스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동항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국동항 환경 정비와 불법 주차차 금지 등에 실천 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동항 재생 사업은 해양수산 부분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부, 국토해양부 등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계약을 맺어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 신청 절차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동항은 과거 잡는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수산업의 중심지였고,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와 부가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으나 원도심의 쇠퇴와 더불어 지역민이 함께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동항의 기억을 향유하는 재생 사업을 통해서 국동항의 발전된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필자에게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과 조언을 주신 운문철 선생님 과 전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심한 감사를 전해 드린다.

無等鼓

요즘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도서관, 카페 등에서 오로지 재미를 찾아 휴대폰에 코를 박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저기 거리에 숨어 있는 서점에서는 '뇌에 반짝이는 통찰을 주는' 책들 또한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펴낸 책들의 경우 '사피엔스'가 국내에서만 65만 권, 후속작인 '호모 데우스'는 25만 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간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

한반도 비핵화

10만 권이 각각 판매됐다. 600쪽에 이르는 두툼한 부피를 자랑하는 이 책들이 '세상에 대한 전문가적 통찰'을 갈구하는 국내 독자 수십만 명에게 이미 읽혔다는 이야기다. 문체와 주제는 다르지만 영국 작가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이기적 유전자'와 '만들어진 신', 그리고 미국 지리학 교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영국의 이론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미국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등 인류와 우주에 대한 심오한 이해가 깃든 책들도 수십, 수백만 권의 판매고를 자랑한다.

물론 이들 '스튜디오셀러'의 등장엔 인터넷을 포함한 과학의 발달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지구촌을 뒤흔든 인권 혁명으로 정보 접근이 자유로워진 데 따른 것이긴 하다. 그렇지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우리 한국으로서의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이들 책의 평판이 워낙 높다 보니 거기에 담긴 견해나 사상을 사람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류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이들 책의 저자는 거의 대부분 미국과 유럽 출신으로서, 자국과 자국 문화 중심의 세계관을 은연중에 퍼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왜곡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갈등 종식'이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지금,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미국·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다시 왜곡되지 않도록 지구촌을 상대로 한 신중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홍행기 편집부국장·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동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문 배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